

주간 통일정세

2014-34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 파견 안해"(8/28, 조선중앙TV)
 - 손광호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측이 우리 응원단이 나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시비하고 바라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을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함.
 - 그는 "남측은 우리 응원단이 나가는 데 대해 대남 정치공작대니, 남남갈등 조성이니 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험담하다 못해 (심)지어 지난 7월에 진행된 북남 실무회담에서는 우리 응원단의 규모가 어떻다느니, 우리 응원단이 응원할 공화국기 크기가 크다느니 작다느니 하면서 시비를 걸고 또 (심)지어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않은 비용 문제까지 꺼내들면서 북남 실무회담을 끝끝내 결렬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함.
 - 이어 "지난 8월 20일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추첨식과 국제체육학술토론회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이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남측 당국 관계자들에게도 이에 대해 이미 통지했다"고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국제사회, 한미군사훈련 문제 삼아야"(8/26,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6일 '핵전쟁 연습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UFG 연습이 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제사회가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합동군사연습을 문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논평은 또 UFG 연습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조선에서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이 계속되는 한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는 중단없이, 그것도 더욱 강력히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함.

-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도 25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긴급 의제로 상정해달라는 서한을 다시 발송했다"며 국제사회가 UFG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 UFG연습 끝나도 비난…"값비싼 대가 치러야"(8/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정례적인 군사적 대응은 자위적 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UFG 연습이 한반도의 초긴장 상태를 몰고 왔으며 "핵전쟁 위협소동을 단연코 끝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힘.
 - 신문은 '대화와 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다'는 글에서도 UFG 연습을 거론하며 남한 당국자들이 최근 '대화와 협력'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장본인이 미국과 남한이라고 비난함.
- 北 신문 '남북관계 개선 실천적 조치 촉구…'장벽 없애야'(8/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기존 남북합의 정신에 입각해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을 남측에 촉구하면서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높아지는 것은 "남측이 통일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해체하지 않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이 있다"며 5·24조치 해제를 요구함.
 - 신문은 이어 지난 18일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통일부 성명을 언급하며 "북남관계가 이토록 침체한 국면에서 나온 남조선의 입장 표명에 대해 내외여론은 주목하면서 차후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힘.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탄도미사일 발사 3천급 잠수함 개발했다(8/26, 워싱턴 프리 비컨; 8/27, 연합뉴스)
 - 미국의 정치·군사전문 웹진인 '워싱턴 프리 비컨'이 26일(현지시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면서 SLBM을 전력화하기 위한 수직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는 3천급 이상의 잠수함 개발에 성공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아직 북한이 3천급 잠수함을 건조했다는 징후가 한미 군 당국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제 퇴역 잠수함을 역설계해 3천t이상인 골프급 잠수함을 비밀리에 개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일부 벤젠중독 증세 주장(8/27, 연합뉴스)
 - 개성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일부 북한 근로자들이 발열, 두통 등의 증세를 보여 해당 공정의 작업이 중단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우리 측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에서 유해물질로 근로자들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북측 주장이 제기됐지만 북한의 현장 역학조사 거부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재해 여부는 단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바. 남북 사회 관계

- 남북, 인천AG 협의재개...응원단 문제는 일단 빠져(8/26, 연합뉴스)
 - 북한 선수단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사이의 서면협약이 26일 시작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6일 통지문에는 북한이 밝힌 273명의 선수단 파견을 받아들이며 남북간 왕래 방식에 대해서도 북한이 제의한 서해직항로를 통한 왕래 방식에 동의하고 다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되었으나 응원단 파견 문제는 22일 북한이 우리 측에 전한 서한에서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입장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이 관심하는 어떤 문제도 다 논의할 수 있다' 발언 등(통일준비촉진법 등 출범)을 "가면극을 펼쳐놓고 소란을 피우는 흥계"라며 '남한 당국의 실천행동(한미 군사연습 중단, 남북합의들 이행)' 주장(8.28, 중앙통신·민주조선)
- 남한이 '韓美 UFG를 강행하면서 대화를 제기하는 철면피의 극치'라며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건너치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8.31, 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퍼거슨 사태' 비난...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국"(8/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2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퍼거슨 사태'를 지적하며 "미국이야말로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주민들이 언제 총에 맞아 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암담한 인권유린국가"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은 마치 국제인권재판관이기라도 한 듯이 해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점수를 매기며 세계를 훈시하다가 이번에 제 집안에서 터진 일로 망신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됐다"고 강조하며 "남의 집 일을 걱정하면서 간참하기보다는(끼어들기보다는) 광범한 국제공동체의 일치한 비난을 성근하게(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제 코나 씻는 것이 바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임.
- 北 국방위, 북핵 다룬 영국 TV 연속극 제작 비난(8/31, 연합뉴스)
 - 북한 국방위원회는 31일 영국의 상업방송 '채널4'가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연속극 제작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제작 중단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함.
 - 국방위는 31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채널4의 계획을 거론하며 "영국 당국은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제작되고 있는 반동영화들을 지체없이 오물통에 처넣고 주범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스는 전함.

- 채널4는 최근 영국인 핵 과학자가 북한에 억류돼 북한 핵무기 개발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다는 내용의 연속극 '오퍼짓 넘버'(Opposite Number)를 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가입 39주년 비동맹운동 "강화 발전시킬 것"(8/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1975년 8월 25일 개최된 페루 리마 비동맹운동 외교장관회의에서 비동맹운동 가입국이 된 것을 기념하여 '빨럭불가담(비동맹)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걸어온 39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함.
 - 신문은 그동안 비동맹운동의 '주동적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빨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이념에 충실하며 빨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국주의자들이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을 감행하면서 힘으로 합법적인 정권들을 전복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 "위조화폐 본산지는 미국···北위조화폐설은 모략"(8/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논평을 통해 美 위조화폐 제작, 유통시켜온 미국인 10명과 이스라엘인 3명 체포 관련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조화폐 제조국으로 걸고드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며 "공화국과 연계시켜온 위조화폐 설은 한갓 모략극,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함.
- "北-몽골 친선, 김정은 시대 외교 성과"(8/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북한-몽골 관계가 최근 강화됐다고 이를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성과로 부각시킴.
 - 조선신보는 이날 '메아리' 코너에 실린 '조선과 몽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외교가 미국의 '포위말살정책'에도 확장되고 있다며 "몽골과의 우호관계 심화는 김정은 시대의 적극적 외교의 또 하나의 실례"라고 강조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美 하버드대 대학원생 40여명, 올 초 북한 방문"(8/27,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하버드대 공공정책·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법학·의학 실무진·학생 등 40여명이 지난 3월 일주일간 평양·개성·함흥·원산 등을 방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학생들의 전공과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접목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방문으로 방문 기간에 북한의 교수·대학생들을 만나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방문했다고 RFA는 전함.
- '오바마 친구' 래퍼, 국제레슬링대회 관전 위해 방북(8/28, 로이터통신)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미국 유명 래퍼 프라스 미셸(41)이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레슬링대회를 관전하기 위해 29일 방북한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함.
 - 프라스 미셸은 1990년대 인기 있었던 혼성 3인조 힙합그룹 '푸지스'(Fugee) 멤버로 평양에서 일본 프로레슬러 출신 참의원 안토니오 이노키가 주관해 열리는 대회를 보기 위해 일주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선수였던 밥 셉이 출전하는 레슬링 경기 등과 무술시범을 볼 예정이라고 함.
- 北외무상 15년만에 미국 방문... '북미 관계' 변화 촉각(8/30, 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오는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에 맞춰 북한 방문단을 이끌고 미국 뉴욕을 찾는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뉴스는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는 것은 1999년 백남순 당시 외무상 이후 15년만이며 특히 리 외무상은 본인이 직접 유엔총회 각국 대표 기조연설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되었다고 밝힘.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北통신, 북일 어린이 그림전 보도·친선 부각(8/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 능라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에서 북일 어린이 그림 전시회가 열렸다고 황호남 조선대외문화연합회 부위원장과 요네다 신지 일본 유네스코협회연맹 이사가 참석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지금 일조(북일) 사이에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다"는 요네다 이사의 발언도 비중 있게 소개함.
- "북일 외무성 최근 접촉·납치문제 중간보고 협의"(8/31, 교도통신)
 - 교도통신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이번 달 네 번째 주 후반부터 다섯째 주 초반 사이 극비리에 접촉했으며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과 유성일 북한 외무성 일본과장이 참석했다고 31일 전함.
 - 통신은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 화객선 만경봉 92호의 일본 입항 허용과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의 추가 해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본부 건물 매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지만 일본인 납치 피해자 12명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함.
 -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추가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납치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에 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함.

사. 대러시아

- 러시아 외딴 기차역에 '김정일 방문 기념' 현판·왜(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러시아 아무르주(州) 부레야역(驛)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방문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고 27일 보도함.

- 현판에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2011년 8월 21일 부레야역에 오시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고 전함.
 - 제막식에는 하바롭스크 주재 북한 부총영사, 부레야역 역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현판에 헌화했으며 행사 참석자들은 "사적 현판은 조선-러시아 친선의 상징"이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도 부레야역을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최고재판소장, 러 검찰총장과 인권·테러문제 논의(8/30, 러시아의소리방송, 이타르타스통신)
-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박명철 최고재판소장이 유리 차이카 검찰총장과 인권보장·테러척결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30일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차이카 검찰총장은 박 소장과 만나 인권·테러 문제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관계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박 소장에게 러시아 검찰 조직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고 이 방송은 전함.

아. 국제기구

- "북한 해운사 선박3척 이름 바꿔 제재회피 시도"(8/27, 산케이신문)
 - 유엔이 무기 운반을 이유로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시점을 전후해 관련 선박 3척의 이름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에 OMM이 선박관리자로 등록된 압록강호 등 화물선 2척은 이달 5~27일 명산 1호 등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유럽국가의 데이터베이스에 OMM이 운항안전관리자로 등록된 또 다른 선박은 최근 수개월 사이에 북한 내에서 철룡호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함.
 - 신문은 선박 3척의 명칭이 잇따라 바뀐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 사이에서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교란행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전함.

자. 기타 국가

- "英 정부, 北 언론인 인터넷 교육 지원"(8/27, VOA(미국의 소리))
 - 영국 외교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북한 기자들의 인터넷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전함.
 - 영국 외교부의 인권·민주주의 프로그램은 국제 언론인 교육기관인 틴슨재단을 통해 북한 기자들에게 인터넷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이나 구체적인 예산과 교육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함.

- 우키시마마루 폭침사건('45.8.24) 관련 '일본 정부의 조선인학살계획에 따라 조직 집행된 고의적인 집단살인 범죄사건'이라고 비난(8.26, 중앙통신)
- 재일본 조선유학생동맹대표단(단장: 박동호위원장)과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홍릉남 총련 오까야마현상공회 회장), 8월 26일 평양 도착(8.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영국 레이버당 전국정책연단 성원과 일행, 8월 26일 귀국(8.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존 케리 美 국무장관의 발언(北이 핵 포기하면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가 가능) 관련 "흑백을 전도하는 논리"라고 비난하며 '北의 핵무기 보유와 북미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8.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쿠바 외무성 대표단, 8월 27일 귀국(8.27, 중앙통신·중앙방송)
- 몽골 대외관계상 고문과 일행, 8월 27일 평양 도착(8.27, 중앙통신·중앙방송)
- 채무진(北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美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소년(마이클 브라운) 사망에 "항구무언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인권타령이야말로 남을 걸고들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다"고 비난(8.28, 중앙통신)
- 日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대표단(단장: 기따하라 마모루 회장)과 재일동포조국방문단(단장: 김상규), 8월 29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8.29, 중앙통신·중앙방송)
- 방북 日 이노키 의원, 北 김영남과 회담(8.30, 교도통신)
- 미국의 '北 미사일 발사 우려(저강도 도발)'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미국이 진짜도발자'라며 "우리(北)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들은 앞으로도 더욱 강도높게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8.31,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공수부대 낙하산·타격 훈련 지도(8/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공육전병부대(공수부대)의 낙하산 훈련과 대상물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의 항공육전병부대 훈련 지도는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및 제1부총참모장,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방관복 총참모부 제1전투훈련국 국장, 장동운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등이 동행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실전훈련 마친 공수부대원과 기념사진(8/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전훈련을 마친 항공육전병부대(공수부대)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이번 기념촬영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및 제1부총참모장,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방관복 총참모부 제1전투훈련국장, 장동운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박태수 해군사령부 정치위원 등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제323·162·252군부대 소속 육전병과 항공 및 반항공군 제858부대 비행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어떤 전투 임무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꾼"이 돼야 한다고 군인들을 격려했다.
- 北 김정은, 현대화공사 마친 일용품 생산공장 시찰(8/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개월 만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10월8일 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제593대연합부대, 제101군부대, 제489군부대, 제462군부대에 감사를 졌으며 근로자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라고 지시한 뒤 공장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이날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홍영칠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동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駐러시아 대사에 김형준 임명...8년 만에 교체(8/2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러시아 연방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로 김형준 동지가 임명됐다"고 보도함.
 - 북한의 러시아 주재 대사 교체는 2006년 9월 박의춘에서 김영재로 바꾼 이후 처음으로 김형준은 김정은 정권이 임명한 첫 러시아 대사이기도 하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청년절 맞아 주요 간부들 공장과 농장 등에 나가 청년학생들 축하(8/28, 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영남·박봉주·김기남·최태복·최룡해·박도춘·양형섭·강석주·김평해·곽범기·오수용·로두철과 중앙과 지방의 일꾼들이 8월 28일 김일성 종합대학·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공장·농장 등에 나가 청년학생들 축하했다고 전함.

다. 공식 행사

- 北 '선군절' 맞아 곳곳 무도회·공연...축제 분위기(8/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창건기념탑, 평양체육관, 개선문광장 등 평양 시내 곳곳에서 선군절을 기념하는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가 열렸고 지방 각 도에서도 선군절 경축 무도회가 펼쳐졌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TV도 25일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조선인민군협주단이 '승리는 대를 이어'라는 제목의 음악무용공연이 열렸다는 소식과 함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당·정·군 수뇌부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충성' 인민군 장병들의 결의대회, 8월 25일 쌍운리 혁명사적지에서 진행(8/26,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육·해·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 참가 한 가운데 인민군 장병들의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고 26일 전함.

-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 및 결의대행진 (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 및 결의대행진을 김영남·최태복·최룡해·전용남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하였다고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김정일 선군정치 띄우며 '김정은 정통성' 선전(8/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5일 6면 전면에 걸쳐 선군절과 관련된 사진과 글을 실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역사'를 잇는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그에 대한 충성을 촉구함.
 - 1면 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세운 선군정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계승한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역설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 조국이 인공위성 제작·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며 선군혁명 사상을 이어받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주문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지시, 8월 24~25일 평양시 탁아소·유치원들과 육아원·애육원·미림학원 어린이들에게 금수산태양궁전 포도원에서 수확한 "포도송이" 전달(8.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두단오리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8월 26일 광범기(黨 비서, 당 중앙위 축하문 전달)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8.26, 중앙방송)
- 청년절 경축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 전시회' 폐막식, 8월 26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8.26, 중앙통신)
- 제10차 전국 농업근로자 민족체육경기대회 개막식, 8월 26일 모란봉유원지에서 진행(8.26, 중앙방송)
- 양형섭·리수용(외무상), 8월 26일 쿠바 외무성 대표단(단장: 헤라르도 베날베르 브르달 쌍무총국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8.26, 중앙통신)
- 강석주(黨 비서), 8월 26일 이탈리아 여러 정당출신 국회의원대표단(단장: 안토니오 라찌 이탈리아공화국 국회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과 담화(8.26,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텔레비전극 창작사 배우 등에게 '감사' 전달(8.27, 중앙방송)
- '햇볼컵 축구' 결승경기, 8월 28일 양각도축구경기장에서 진행 및 최룡해(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김영훈(체육상)·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등 관람(8.2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지시 '4대교양(김정일 애국주의교양·신념교양·계급교양·도덕교양)'에 관한 「직맹」 일꾼들 연구토론회, 8월 28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직맹」 일꾼들과 노동계급·「직맹」원들 참가한 가운데 개최(8.28, 중앙통신)
- 리수용(외무상), 8월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체코·불가리아·폴란드·영국·독일·루마니아·스웨덴 외교 대표들 면담(8.28, 중앙통신)
- 전국 노동자 체육경기대회 폐막모임, 8월 29일 최룡해(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8.29,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보산제철소 기술개건 정형 현지요해(8.30,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 전집' 제8권(1964년 4월부터 1965년 6월까지 발표한 120건의 노작들 수록) 출판(8.30,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순조(김일성고급당학교 명예교수) 등 2명에게 80회·최학숙(중구역 서문동)에게 70회 '생일상' 전달(8.31, 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칠보산 '꾸미기' 박차...생태·송이관광 계획(8/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북한이 칠보산지구의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계기로 생물 다양성 보호와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북한이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 등 3개 지구에 대한 생태관광 계획을 제작성하고 있다며 "유기과수농장관광, 송이버섯수확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내놓을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소개함.

- 이밖에 지구 내 협동농장에서 과일 생산을 늘려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6개 수산사업소에서 생태양식기지를 꾸려 칠보산 전통수산물인 다시마, 미역의 증산과 품질향상"을 꾀할 계획이며 생물다양성 전반을 보존하는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힘.

■ 北 잡지 "돌격대식 공사 부실 우려"...질적 성장 강조(8/31, 경제연구:연합뉴스)

- 북한 계간학술지 '경제연구' 최신호(2014년 3호)에 실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중요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북한산 소비품과 건축물의 부실한 점을 거론하며 "질적 성장에 소홀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라고 지적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전함.
- 논문은 또 "자력갱생을 한다고 하면서 재질적 요구가 보장되지 못한 대응품을 써서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현상"도 지적하며 "인민 생활과 건강에 해를 주는 불량상품이나 우리 식이 아닌 제품들이 생산돼 나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뉴스는 전함.

나. 주요 후속 조치

■ '단백질 섭취 늘리자'...北, 주민 영양개선에 '총력'(8/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북한이 최근 주민 영양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군인들의 영양섭취에 우선중점을 두고 이달 들어 관련 현장을 시찰하며 군인복지 향상을 독려하고 나섰다고 전함.
- 뉴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24일 군 소속 식품공장인 '11월2일공장'을 방문, 이에 앞서 사흘 전 군 소속의 초식가축 육종장 시찰, 올해 1월 군인 보급을 전담하는 군 후방총국 지휘부를 시찰에서 모두 단백질 섭취를 강조했다고 전함.
- 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건강식품연구실에서 흰쌀보다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3배나 높은 '기능성감자콩쌀'을 새로 연구개발하고 강원도 세포동판의 대규모 축산단지를 건설하는 등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여전히 단백질 등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함.

다. 경제 상황

- 北, 지난달 중국산 쌀 수입 급증…작년보다 115% 증가(8/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중국산 쌀을 대거 수입했다고 전함.
 -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7월 북한에 수출한 쌀은 701만9천738달러(약 71억 원) 어치, 1만1천780t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6월 수입액 457만 5천587달러보다 53% 늘었고 작년 7월 327만 1천67달러보다 115%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임.
 - 뉴스는 지난달 중국산 쌀 수입증가는 시장의 쌀값을 안정화하려는 조치일 수 있으며 올해 쌀 수확이 가뭄 등으로 작년보다 나쁠 상황에 대비해 수입량을 늘렸을 가능성도 제기함.

- 평양 호텔에서 팩스 1장 보내는데 7달러…왜 비쌀까(8/29,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평양의 고려호텔과 양각도호텔이 제공하는 팩스 사용료가 너무 비싸 외국인들이 불만이라고 소개함.
 - 방송에 따르면 호텔 로비의 통신센터에서 팩스 한 장당 5유로, 즉 7달러(약 7천원)를 받으며 이는 미국의 최고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보다 훨씬 비싸 외국인들은 대동강구역에 있는 유엔 기구 사무실이나 외국대사관에 들어가 팩스를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함.
 - 방송은 북한이 외국인에게 팩스 요금을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외화를 많이 벌려는 목적이 크며 또 폐쇄적인 사회인만큼 외부와 소통하는 수단은 다른 재화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함.

- 北 평양 시민도 집에서 백화점 주문상품 받는다(8/31, 조국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최신호(9월호)의 '목표는 인민들의 만족'이라는 글을 인용해 북한의 대표적인 국영상점인 평양제1백화점이 서비스 개선에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전함.
 - 잡지는 판매원들이 인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주문된 상품을 가정이나 현지에서 직접 가져다 판매하고 있으며 또 평양제1백화점 직원들이 화력발전소, 탄광, 방직공장, 협동농장 등 생산현장에 직접 나가 노동자, 농민에게 상품을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뉴스는 전함.

라. 대외 경제관계

- 독일 정부, 北 결핵·간염환자에 6억원 지원(8/26, 미국의소리(VOA))
 - 독일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45만 유로(약 6억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전함.
 - 방송은 독일 정부가 지난 14일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독일카리타스'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이 금액을 제공했으며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돕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함.

- "북·러 루블화 결제 지연...기술적 문제 탓"(8/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무역확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무역대금 루블화 결제가 기술적인 문제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극동개발부 홈페이지를 인용해 27일 보도함.
 - 양국은 루블화 결제를 지연시킨 '기술적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준비 부족이 원인일 확률이 높다고 RFA는 전함.

- 북한 '10월 단둥박람회'에 500명 파견...“작년 수준”(8/28, 중국신문사)
 - 북한이 오는 10월 16~20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열리는 '제3회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에 지난해와 같은 500명의 참가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중국신문사가 28일 보도함.
 - 신문은 지난 2012년 시작된 북·중 간 유일한 종합박람회인 이 행사에 북한은 올해 100여 개 무역업체 관계자 300여 명을 비롯해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단과 여행사 관계자, 공무원 등을 참가시킬 계획이라고 전함.
 - 박람회는 양국기업 상품전시, 경제·무역상담, 문화교류, 관광협력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세부행사로는 메인행사인 북·중 상품전람회, 북·중 무역전시판매기지교역회, 북한미술품전시회, 북·중관광협력상담회 등이 열릴 것이라 신문은 보도함.

- 북한, 볼보車 1천대 수입대금 4천억원 40년간 연체(8/29, 뉴스위크)
 - 북한이 지난 1970년대초 스웨덴 볼보로부터 수입한 144GL 세단형 승용차 1천 대분의 대금을 아직도 갚지 않아 스웨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9일 보도함.
 - 뉴스위크에 따르면 북한이 지급해야 할 대금은 이자와 인플레이를 감안하면 30억 스웨덴 크로네(약 4천9억원)를 넘으며 수출보증을 선 스웨덴 정부기관의 장부에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남아있으며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청 관계자는 해마다 2차례씩 상황을 독촉하지만 "잘 알다시피 북한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함.

- 北 이과대학, 운전기재의 내연기관 성능을 즉시에 전달하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였다고 선전(8.26, 중앙통신)
- 전국 체신부문 과학기술발표회(김일성종합대학 등과 과학·체신부문 공장-기업소 과학자 등 참가), 8월 26일~28일 남포시 정보통신국에서 진행 및 '체신의 현대화를 위한 180여건의 성과자료' 제출(8.28, 중앙통신)
- 리과대학의 '초산에틸' 생산기술 새로 개발 및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 도입 결과, '생산실수를 보장, 제품의 질 개선' 등 선전(8.28, 중앙통신)
- 전국 이름난 술 생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8.28~29,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 강원도 문천식료공장에서 진행(8.29, 중앙통신)
- 평양시,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꾸리기 위한 단장 사업 진행(8.29, 중앙방송)
- 은률·재령광산의 8월 30일 현재 쇠돌 생산계획 각각 100.1%·110% 수행 및 대흥단군에서 '밀보리 수확' 시작 보도(8.31,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에선 영화배우도 조기교육…중등과정 배우반 눈길(8/26, 예술교육;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평양의 창광중학교 조기 배우반에 대한 기사가 실린 북한의 격월간지 '예술교육' 최신호(2014년 4호)를 인용해 영화 배우 조기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26일 보도함.
 - 이어 조기배우반 학생들은 영화와 연극 등에 아역으로도 많이 출연하며 북한에서 가장 관록 있는 조기배우반은 평양 창전중학교 배우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뉴스는 탈북자 인터뷰를 인용해 조기배우반이 있는 창광중학교, 동흥중학교, 창전중학교는 모두 상류층이 모여 사는 중구역에 있고 이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중앙당 간부나 군 고위간부의 자녀라고 밝힘.
- 北도 생활체육 '열기'…평양서 체육공원별 배구대회(8/27, 조선신보)
 - '체육 열풍'이 불고 있는 북한에서 생활체육이 활기를 띠면서 지역별로 팀이 조직돼 대항전까지 벌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7일 보도함.
 - 조선신보에 따르면 평양 시내 곳곳에 배구장이나 농구장 등을 갖춘 '체육공

원'이 들어서면서 공원별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체육팀이 만들어졌으며 공공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 19년 만에 프로레슬링대회 TV예고로 '분위기 업'(8/2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26일 오후 오는 30~31일 평양에서 19년 만에 열리는 국제 프로레슬링 대회 예고 영상을 26일 내보냄.
 - 중앙TV는 링 위에서 몸을 날리며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프로레슬러들의 공격 장면을 연이어 보여주는 한편 또 밥 샐(미국), 제롬 르 뱅너(프랑스), 피터 아츠(네덜란드) 등 해외 유명선수들의 표정 사진을 일대일 대결구도로 잇달아 편집하기도 함.

- 도심서 수영복 입고 '비치발리볼'...달라지는 北(8/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바닷가로부터 도시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래터 배구(비치발리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수욕장에서 인기를 끌던 비치발리볼이 도심 물놀이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평양 만경대구역에 마련된 경기장을 소개함.
 - 김충관 평양시 만경대구역 인민위원장은 통신과 인터뷰에서 "얼마 전 100여 t의 모래를 실어와 3일 만에 배구장을 만들었다"며 "모래터 배구는 해변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최근 물놀이장마다 만드는 것이 유행"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北 국제프로레슬링대회 개막... "국가 간 연대 강화 계기 기대"(8/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국제프로레슬링대회가 30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개막식에는 김영훈 체육상,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장웅 국제무도경기위원장, 박근광 조일우호친선협회장, 김명철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노키 의원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오랜 기간 단혔던 일조 관계의 문이 열리고 양국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선수들, 8월 29일 제2차 청소년올림픽경기대회(중국) 참가 후 귀환(8.29, 중앙통신·평양방송)
- 北, 8월 29일 평양 국제프로레슬링경기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예술공연'(동평양대극장) 진행(8.29, 중앙통신)
- 평양 국제레슬링경기대회 폐막식, 8월 31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김영훈(체육상)·이노키 간지(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이사장)·장웅(국제무도경기 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 및 제2일 경기 시상(8.31,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대북정책 라인 '새판짜기'...6자회담 특사 임명 예정(8/25, 연합뉴스)
 -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공식 상태이던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산하 6자회담 특사를 새로 임명할 예정이다.
 -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해온 사일러 보좌관이 국무부의 북핵담당 업무를 직접 맡으면서 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지만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기존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함.

나. 미·북관계

- "미국 정부 당국자 최근 군용기로 방북"(8/31, 연합뉴스)
 -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비공개 회담을 했다는 국내 언론보도와 관련해 "아는 바 없다"고 밝힘.
 - 그러나 아사히(朝日)신문은 31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 당국자를 태운 군용기가 이달 16일 오전 평양으로 갔다가 다음날 새벽 돌아왔다고 보도함.
 -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적 문제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고,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해 북한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다. 중·북관계

- 중국 "첨단 관측위성 활용해 중·북 불법통로 적발"(8/25,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은 25일, 중국이 지난해 발사한 첨단 지구관측 위성을 활용해 중·북 접경지역의 불법 월경 통로들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이날 국가항천국(航天局) 홈페이지를 통해 '가오펀(高分) 1호 위성'을 소개함.
 - 국가항천국은 중국 공안부가 '가오펀 1호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중·북 접경지역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10여 갈래의 불법 월경 통로를 찾아내 공안 관계 부문이 법을 집행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힘.
 - 이번에 위성을 동원해 외딴 산간이나 강가가 많은 중·북 접경지역을 감시해 월경 통로를 찾아낸 것은 북한 주민 이탈 루트뿐만 아니라 북한산 마약 밀반입 루트 차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라. 일·북관계

- "방북 데이노키 의원, 北 김영남과 회담"<교도>(8/30,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 중인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원이 30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했고,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양국 스포츠 교류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함.
 - 이노키 의원은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 국제 프로 레슬링대회에서 "이번 국제 행사를 계기로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가깝지만 먼' 관계가 아니라 '가깝고 가까운'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한 것으로 전해짐.
 - 이날 행사엔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의 프로 레슬링 선수 21명이 참가했고, 약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만석이었으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체육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日납치문제담당자 "현단계서 北서 듣고싶은 말 들어"(8/31, 연합뉴스)
 - 일본 내각부 소속의 납치문제 담당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다고 해서 협상 자체를 중단시킨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한일 기자단 교류차 일본을 방문한 한국 언론과 지난 26일 만난 자리에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또한 납치문제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의 딸 김은경씨가 연내 일본을 방문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정은 없다"고 전함.
- "일북 외무성 최근 접촉...납치문제 중간보고 협의"<교도>(8/31,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31일, 양측의 만남이 이번 달 네 번째 주 후반부터 다섯째 주 초반 사이 이뤄졌으며,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과 유성일 북한 외무성 일본과장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북한은 이번 접촉에서 화객선 만경봉 92호의 일본 입항 허용과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의 추가 해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본부 건물 매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 이에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추가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납치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에 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마. 러·북관계

- "러·북 루블화 결제 지연...기술적 문제 탓"<美방송>(8/27,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 러시아 극동개발부 홈페이지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무역확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무역대금 루블화 결제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양국 은행 간 기술적 문제 탓에 루블화 결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당국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러시아 현지 언론도 지금까지 양국 간 루블화로 무역대금을 결제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음.
 - 이에 RFA는 양국이 루블화 결제를 지연시킨 '기술적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준비 부족이 원인일 확률이 높다고 전함.

바. 기타

- 김용 세계銀 총재 “北, 회원 되면 도울 것”(8/29, 연합뉴스)
 -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2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최신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정치 후진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함.
 - 김 총재는 "크게 비판받는 국가 내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사회기반 시설과 보건·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서 비민주적인 국가라도 지원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이어 북한이 비회원국임을 지적하며 북한이 세계은행 회원국이 되면 "우리 규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북한도) 도울 준비를 갖추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덧붙임.

- “북한 해운사 선박3척 이름 바꿔 제재회피 시도”<산케이>(8/29, 연합뉴스)
 - 산케이 신문은 29일, 유엔이 무기 운반을 이유로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 관리회사(OMM)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시점을 전후해 관련 선박 3척의 이름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 이 보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에 OMM이 선박관리자로 등록된 압록강호 등 화물선 2척은 이달 5~27일 명산 1호 등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또 다른 선박은 최근 수개월 사이에 북한 내에서 철룡호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전해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 사이에서는 선박 3척의 명칭이 잇따라 바뀐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교란행위'라는 분석을 제기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韓美, 10월 '2+2'회의 검토...케리 美국무 일정 변수(8/26, 연합뉴스)
 -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오는 10월 하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한미 연례안보협의(SCM)와 연계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함.

- 양국은 이번 2+2 회의에서 당초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 연기 방안을 합의 발표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양국 외교·국방장관 4명의 일정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아 회의 개최 시기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각종 현안에 대처하느라 바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일정이 최대 변수라고 덧붙임.

■ 미국방부 "한미 합동훈련 계속…한반도 안보공약 철통"(8/27,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핵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삼가고 "한·미간의 군사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대(對) 한반도 안보공약은 철통"이라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촉구한다"고 말함.
- 리 차석대사는 전날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연례적이며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북한을 핵 공격하려는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함.

■ 김관진 방미 추진…백악관과 대북정책 포괄조율(8/31, 연합뉴스)

- 정부 소식통은 31일, 한미 양국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실장의 미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전하며 이르면 추석 연휴 전후로 방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지난 6월 임명된 김 실장의 안보실장 자격 미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하고 북한·북핵 문제,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밖에도 북핵 문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 일본의 집단자위권 결정과 관련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나. 한·중 관계

- "시진핑 7월 한중정상회담서 MD 거론…신중처리 요청"(8/26, 연합뉴스)
 - 외교 관측통들은 26일, 시 주석이 지난달 3일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사일방어(MD) 체계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신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함.
 -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시 주석이 MD 체계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직접 거론한 것은 한미 간의 긴밀한 MD 체계 구축이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한 일종의 '레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함.
 - 한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현재 중국은 미국의 MD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 자체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기보다는 MD 체계 문제를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판단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함.

- "시진핑 한국 단독방문은 '점혈식 외교' 전형"<인민일보>(8/27, 연합뉴스)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한국을 단독 방문한 것은 일종의 '점혈'(點穴)식 외교'의 특징을 띠고 있다고 분석함.
 - 이 분석에 따르면, 시 주석의 한국과 몽골 방문은 둘 다 한 국가에 대한 단독 방문이라는 점과 1박2일로 매우 짧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빠르고, 효율성이 크고, 기동성이 높은 '점혈식 외교'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줌.
 - 이에 가오페이(高飛) 외교학원 중국외교이론연구센터 주임은 '점혈식 외교'에서 '점'은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그 '점'은 전체 판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며 "시 주석이 한국을 '점혈'(방문)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안보상황과 관련해 북한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함.

다. 한·일 관계

- 한일, 내달 차관급 전략대화 전망…"일정 협의중"(8/27,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 "한일 차관급 전략 대화 개최를 위해 일정을 협의중"이라고 말했고, 다른 정부소식통은 "개최 날짜 조정만 남은 상태"라고 전함.

- 이번 협의 자체는 우리 측이 제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됨.
 -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일 관계의 기본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전함.
- 외교차관 "아베 정부,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 잘 읽어야"(8/28, 연합뉴스)
 -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8일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중 "한일관계 악화를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하거나 오히려 우리 정부의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인사들의 견해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힘.
 - 조 차관은 이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전해짐.
 - 또한 "아베 정부는 이번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일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 유홍수 주일대사 "히로시마 산사태 지역 방문하겠다"(8/28, 연합뉴스)
 - 유홍수 신임 주일대사는 28일, 산사태로 8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가 나온 히로시마(廣島)시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밝히며 대사로서의 첫 출장으로 이재민 위로 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힘.
 - 이날 유 대사는 도쿄 외무성 청사에 부임 인사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복구에 큰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말쯤 히로시마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할까 생각한다"고 말함.
 - 기시다 외무상은 "앞으로 한일관계의 중요한 시기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뒤 "한일관계에 정통한 대사님의 부임에 대해 우리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덕담함.

라. 미·중 관계

- 미국·중국, 하늘 이어 해저서도 군비경쟁(8/27, 연합뉴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중국 전투기가 최근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미국 해군의 대잠초계기 주변을 위협 비행한 것은 중국과 미국이 하늘에 이어 바다 속에서도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함.
 - 외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 하이난(海南)에 해저 출입구를 갖춘 최소 2개의 잠수함 기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미 국방부는 중국이 올해 안에 핵무기로 무장한 이 진급 핵잠수함을 이용해 해상초계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미국이 위성, 정찰기, 수상함 및 잠수함 등을 동원해 정찰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중국 전투기의 위협 근접 비행사건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함.

- 美中 '심층 정상회담' 11월 12일 전망...한반도 등 의제(8/2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오는 11월 12일에 별도로 만나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로버트 왕 APEC 고위관리회의(SOM) 미국대표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12일에 미·중 간 시각차이나 현안이 어떤 종류든 다 거론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왕 대표는 한반도 문제가 미·중 정상 간 '심층 회담'에서 다뤄질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 25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이 별도의 '장시간' 양자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미·중 경제협력 발전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마. 미·일 관계

- "케리 美 국무, 日외무상에 아베 방북 가능성 우려"(8/28, 연합뉴스)
 - NHK는 2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일 미얀마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고 보도함.
 - 이 보도에 따르면, 케리 국무장관은 기시다 총리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해 한국·미국·일본의 연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지가 걱정된다는 뜻을 밝힘.
 - 이에 일본 정부 관계자는 "회담에서 북일 협의의 진전이 북한을 둘러싼 한·미·일의 공조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계심이 드러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바. 미·러 관계

- 오바마 "러 우크라 군사개입 추가 제재 야기"(8/29,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진입을 비난하면서 추가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을 훈련하고 무장시키는 것은 물론 자금지원도 하며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이어 "서방이 이미 내린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면서 이번 일이 더 큰 비용과 추가 제재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그러나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침공'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전한 것으로 알려짐.

사. 중·일 관계

- "시진핑 측근 리샤오린 일본방문 조율" <교도>(8/26,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이 9월 하순과 10월 상순 오사카(大阪)와 도쿄(東京)를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조정 중이라고 보도함.
 - 리 회장은 우선 다음 달 22~23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중일 우호 교류 회의'에 참석하고, 10월 7일에는 중국과 일본의 우호를 주제를 한 발레 '따오기'의 일본 첫 상연을 관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이에 대해 11월 베이징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용한 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일본 측과 극비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中 "일제가 버린 화학무기 폐기 서둘러야"... 日에 압박(8/27, 연합뉴스)
 - 중국 관영 통신사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일제 유기 화학무기 폐기사업 관련 부처인 공업정보화부의 류리화(劉利華) 부부장은 지난 22~23일 지린(吉林)성 둔화(敦化)시 하얼바링(哈爾巴嶺)관리구를 방문하여 일제 화학무기 발굴·폐기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힘.
 - 류 부부장은 중국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간부들을 대동한 이번 방문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일본이 유기한 화학무기를 모두 소각해야 해당 지역 중국 주민의 생명과 재산, 생태환경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또한 화학무기 유기는 일본이 중국과 세계에 저지른 중대한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 이들 무기를 폐기하는 사업은 국제조약 이행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임.

- 후쿠다 前총리 "시진핑 주석과 중일관계 위기감 공유" <교도>(8/27,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다 전 총리가 27일 도쿄 도내에서 강연한 뒤 질의응답에서 지난달 회동한 사실을 확인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중일관계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고 밝힘.
 - 이날 강연에서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중일 정상회담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그는 이어 "정상회담이 무산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야만 한다"며 "그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이 자신과 만났을 때 "일본 욕을 하지 않았다"며 중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주장함.

아. 일·러 관계

■ 푸틴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 성사될까(8/26, 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는 대통령의 방일을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 짓지 않고 있다"고 말해 방문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고,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도 방문 일정을 확인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일본의 국익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짐.
-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은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5일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우리는 반대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라며 "일본 등 선진 7개국(G7) 정부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자. 기타

■ 중·러 5개국, 다자훈련 종료... '테러척결' 의지 과시(8/29,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의 대테러 합동 군사훈련인 '평화사명(和平使命)-2014'가 29일 폐막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함.
- 양국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 병력 7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 등에 대한 대처를 훈련 목표로 설정하여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고강도로 진행됨.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SCO 회원국들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3개 세력'을 타격하고 지역의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손잡고 대응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EU, 러에 '최후통첩'...1주일내 추가제재안 마련(8/31, 연합뉴스)
 - 헤르만 반 롬퓌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뒤 "(추가제재를 위한) 긴급 예비 작업을 통해 한 주안에 제재안을 제시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힘.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EU는 우크라이나 군사개입을 되돌릴 수 있는 1주일을 러시아에 준다"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가세한 것으로 알려짐.
 -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정상회의에 앞서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러시아의 군사개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같은 서방의 주장을 부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당국, '1호 사진' 관리에 비상(8/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일가가 찍힌 '1호 사진' 관리가 허술해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중국을 방문한 50대의 한 북한 주민은 "당에서 절세의 위인(김 씨 일가)들이 있는 영상도서를 잘 관리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파지(폐지)로 수매되는 1호 사진이 발각되어 함흥에서는 수매소들을 뒤지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밝힘.
 - 북한에서는 학생들에게 '꼬마계획' 명목으로 파지 수매과제를 하달하는 데, 일부 학생들은 파지 수량을 채우기 위해 노동신문과 김 씨 일가 영상 도서들을 수매했다가 적발됐다는 게 이 방문자의 설명입니다.
 - 이에 따라 북한 노동당 부서는 "1호 사진이 있는 신문을 절대 수매하지 말고 당에다 바치라"는 지시를 하달하고, "전국적으로 수매소의 파지더미를 뒤지라"고 조치했음.
 - 그는 북한이 김 제1비서 일가 사진을 많이 찍어낼수록 그 관리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 북한, 지난달 중국산 쌀 수입 급증(8/25, 미국의 소리)
 - 북한의 지난달 중국산 쌀 수입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북한의 쌀 사정이 다시 나빠지면서 북한 당국이 가격안정 대책에 나섰다 관측이 제기됨.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쌀의 양은 약 1만1천800t, 미화로 약 700만 달러어치로, 6월 수입액 460만 달러보다 53% 늘었고 지난해 7월 330만 달러보다는 115%가 증가했음.
 - 특히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월간 중국산 쌀 수입액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임.
 - 북한은 특히 올 들어 중국산 곡물 수입을 대폭 줄여왔습니다.
 - 올해 상반기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곡물은 모두 5만8천여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지난해 쌀 수확량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좋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지난해 작황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지난해 생산한 쌀의 재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낼 시점이기 때문에 쌀 가격 안정 차원에서 취한 조치일 것으로 분석했음.
- 실제로 북한의 쌀 가격은 최근 들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데일리NK'는 최근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서 이달 들어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쌀값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 이와 함께 올해 봄 가뭄이 심했던 탓에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에 대비해 쌀 수입을 늘렸다는 관측도 제기됐음.

■ 北, '퍼거슨 사태 비난...'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국"(8/26,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 퍼거슨시에서 백인 경찰관이 흑인 청년을 사살한 사건으로 소요 사태가 발생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국가'라고 비난했음.
-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야말로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주민들이 언제 총에 맞아 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암담한 인권유린국가"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은 마치 국제인권재판관이기라도 한 듯이 해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점수를 매기며 세계를 훈시하다가 이번에 제 집안에서 터진 일로 망신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 북 영예군인들, 생활고로 범죄에 빠져(8/26, 자유아시아방송)

- 사회적 범죄행위들을 단호히 징벌할 데 대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8월 10일 방침'은 영예군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지적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비사회주의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함경북도 영예군인들의 사상투쟁회의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도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다"고 함.
- 사상투쟁회의에서는 '짹 다리'라는 별명을 가진 청진영예군인공장 노동자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이, 송 씨와 함께 여러 범죄행위에 가담한 영예군인공장 노동자 두 명에게는 영예군인 자격 박탈이라는 처벌이 내려졌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8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혜산영화관에서 영예군인회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적 범죄에 연루된 영예군인들은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을 이번 회의에서 선포했다"고 전함.
 - 이와는 별도로 '시당 회의실'에서는 각 동 사무소장, 인민반장들을 상대로 영예군인들을 잘 돌 볼 데 대한 회의가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혜산교원대학 1학년 청년동맹 비서 김수경 학생이 소개됐다고 함.
 - 김수경 학생은 올해 18살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부영예군인의 자식들을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영예군인공장의 꽃밭을 가꾸고 속보판을 관리하는 등 아낌없는 노력을 바침.
- 북, 내성 결핵환자 치료에 안간힘(8/2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보건 당국이 악성 내성결핵을 추방하기 위해 독일 등 국제구호 단체로부터 결핵예방 백신과 의료설비들을 지원받아 개발하고 있으나 비용이 상당함.
 - 북한 보건 분야 사정에 대해 잘 아는 북한 소식통은 "북한에 결핵환자가 많다는 건 잘 알려졌지만, 그 중에도 내성 결핵 환자가 상당히 많다"면서 "특히 내성 결핵 환자 치료에 많은 비용과 의료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북한 내성 결핵환자 한 명을 치료하자면 한 달에 미화 5~6천 달러에 달하는 약물이 필요한 데,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자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북한 자체로 개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음.
 - 북한 보건성은 백신 개발을 위해 외국의 구호단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선 국제구호단체인 독일 카리타스의 지원으로 평양시에 결핵예방 연구소를 짓고, 강원도 문천시와 천내군에 결핵병동 두 곳을 지었음.
 - 이 소식통은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젊은 의사들은 처음에 결핵의사를 하라고 하면 손사래를 쳤지만, 최근 당의 배려가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연구소와 현장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다"고 설명함.
 - 북한에서 결핵환자는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시기에 영양부족 등으로 급증,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마약 남용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를 매년 2천 명 수준으로 파악함.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017년까지 결핵을 완전히 추방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보건기구는 각 도 마다 결핵병동을 짓는데 미화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함께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결핵과 말라리아 전염병을 퇴치하는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 북한은 이미 지난 3월 세계기금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구호자금으로 4천 3백만 달러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北, 국경지역에 '탈북자송금' 검열 국가보위부 파견(8/27,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국경지역의 탈북자 가족들이 남한 내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일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보위부 검열단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짐.
 -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번 국가보위부 검열은 보름 전부터 시작됐다"면서 "함북 무산군과 회령시에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남한에서 보내오는 돈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 내 가족에 대한 송금이 새삼스럽지 않음에도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국가보위부 검열단을 파견하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됨.
 - 소식통에 따르면 남한에서 보내는 돈을 받았거나, 송금브로커로 외부와의 전화 통화를 한 주민들은 현장에서 발각되면 모두 '반국가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으로, 이번에 적발되면 송금액에 상관없이 교화소 1년 이상의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말이 나옴.
 - 또한 "검열단은 탈북자 가족, 밀수꾼, 송금브로커 등 이들의 명단을 다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동향을 은밀히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미행해 현장을 덮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검열단은 휴대폰 전과탐지를 하는 부서로,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구성된 국가보위부 27국 소속으로 대략 100명 정도로 조직됐으며, 3, 4명이 한 조를 이뤄 검열을 진행하고 있음.
 - 검열이 진행되자 탈북자 가족들이 남한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송금액의 일부를 뇌물로 받고 모른 척 눈감아 주는 도(道) 보위지도원, 보안원, 검찰 등도 조심하며 오히려 주민들에게 함구할 것을 부탁하고 있음.
 - 한편 소식통은 이번 국가보위부 검열은 송금작업에 보위원 등 권력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있어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북한, 군 복무 기간 세계에서 가장 길어(8/28, 미국의 소리)
 - 한국 병무청이 최근 발표한 '외국 주요 국가의 병역제도' 자료에 따르면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북한과 한국 외에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스위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16개 나라임.
 - 이 가운데 북한은 군 의무 복무 기간이 남성 10년, 여성은 7년으로 징병제 운용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은 징병 연령도 세계에서 가장 길어서 14살 이상 모든 남성이 병역 의무 대상이며, 60살이 넘어야 예비군에서 전역함.
 - 북한은 적대계층 자녀와 정치범 등 이른바 '성분 불량자'들을 입영에서 제외하고 있음.

- 北 최고재판소장, 러 검찰총장과 인권·테러문제 논의(8/30, 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박명철 최고재판소장이 유리 차이카 검찰총장과 인권보장·테러적결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30일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음.
 - 차이카 검찰총장은 박 소장과 만나 인권·테러 문제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관계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2. 북한 인권

- "北 인권개선 위해 유엔 개입 지속해야" <세미나>(8/25, 연합뉴스)
 - 25일 오후 연세대에서 열린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유엔의 역할과 보호책임'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 주원치(朱文奇) 중국 인민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

- 적용 가능성은 중국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나, 현재 중국의 입장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등 부정적이라고 지적했음.
- 하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이 핵실험에 매달린 이래 바뀌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음.
 -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둔 유엔대학의 베셀린 파포브스키 교수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려면 R2P 프레임을 적용하기보다는 유엔 메커니즘을 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비인도적 학살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기다리기 전에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했음.
 - 이신화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북한인권정책과 신뢰프로세스 간 균형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북한과 "인도주의적 약속을 더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KBS, 북한 작가의 체제고발 소설 라디오 드라마화(8/26, 연합뉴스)
- KBS한민족방송(AM 972kHz)은 북한 작가가 쓴 체제고발 소설 '고발'을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한 '북한의 솔제니친, 현역작가 반디의 고발'을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매일 오전 1시25분에 30분씩 방송한다고 밝힘.
 - '고발'은 현재 북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 작가 반디(가명)가 쓴 단편소설 모음집으로, 탈북자인 작가의 사촌동생을 통해 국내에 반입돼 지난 5월 출간됐음.
 - 제작진은 "작가가 발각되면 바로 처형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한국으로 내려 보낸 작품모음집"이라며 "북한 현역 작가의 문학작품이 국내에서 방송으로 제작되어 알려지는 것은 최초"라고 설명했음.
 - 제작진은 또한 북한 주민을 주청취층으로 하는 KBS한민족방송에서 이 드라마가 방송되는 것은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내부 고발의 목소리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들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음.
- 홍콩서 제2회 북한인권영화제... '탈북자' 등 상영(8/26, 미국의 소리)
- 홍콩의 민간단체인 '탈북자 관심 (North Korean Defectors Concern)'은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서울의 민간단체인 북한전략센터와 공동으로 홍콩 성시대학에서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영화제를 개최함.
 - '탈북자 관심'의 설립자인 오웬 라우 쿤항 대표는 개막식에서 홍콩인들에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함.

-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24일 이번 영화제에 참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음.

■ 영국 외교부, 북한 기자들에게 인터넷 기술 교육(8/27, 미국의 소리)

- 영국 보수당 돌라 포파트 정부 원내대표는 외교부가 북한 기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더욱 잘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북한 기자들에게 인터넷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힘.
- 포파트 원내대표는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느냐는 데이비드 엘든 상원의원의 서면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음.
- 포파트 원내대표는 영국 외교부의 인권·민주주의 프로그램이 2014-2015 회계연도에 국제 언론인 교육기관인 '툼슨재단'에 자금을 제공해 북한 기자들에게 인터넷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음.
- 하지만 포파트 원내대표는 관련 예산과 교육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탈북자 "김정은 정권서 인권문제 더 심각해져"(8/27,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와 북한민주화위원회, 연세대 휴먼리버티센터 공동 주최로 27일 연세대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COI) 권고 이행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자 이주향(여·가명) 씨는 김정은 정권 집권 후 인권 침해가 이전 정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고 주장함.
- 이날 토론회는 COI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에 권고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 토론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장,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음.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변호사는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가 구축돼야 한다"며 "민관이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든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함.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법안이 올바르게 조속히 제정돼야 국제사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 밖에 참석자들은 문화나 스포츠 분야를 통한 남북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이 인권에 대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NGO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 NGO단체 설립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UN, 내달 19일 북 UPR 보고서 채택(8/27,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감시단체 유엔워치(UN Watch)의 레온 샬티엘(Leon Saltiel) 부국장은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달 19일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5월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실시하고 268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음.
-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는 지난 5월 1일 실시된 회원국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평가와 우려 등을 바탕으로 영국, 아랍에미리트연합, 코트디부아르 3개국이 작성했음.
- 북한은 이 중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정치범 수용소와 성분제 철폐 등 83개 권고안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됐거나 북한을 헐뜯기 위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거부했으나, 국제노동기구 가입검토나 공개처형 중단과 사형집행 유예 등 나머지 168개 권고안은 검토를 거쳐 제27차 이사회 이전에 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링크, 북미 전역 돌며 '북한 인권' 알리(8/28,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 비정부단체 '링크(LiNK)'가 오는 9월 23일부터 '노매드(Nomad)'라고 불리는 5개 자원봉사자 팀을 구성해, 미국, 캐나다 각 지역으로 약 10주간 대북 인권활동을 위한 기금마련 대륙 횡단에 나설 예정임.
- '노매드'들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주간 북미 전역의 교회, 학교, 커피점 등을

- 돌며 북한의 인권 탄압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기금의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 이러한 '노매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링크'의 캘리포니아 본부는 현재 한국의 탈북자 박연미 씨를 초청해 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있음.
- 박연미 씨는 올 가을 홍콩, 영국, 미국에 초청을 받아 북한 실상을 알리는 행사들에 참여해 활동을 펼칠 계획임.

3. 탈북자

- 새터민 '일시불 거액 정착금'은 사기꾼들 표적(8/25, 경향신문)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012년 새터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18.8%는 한국 정착 뒤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사기를 친 사람의 절반 이상(67.6%)은 남한 사람이었으며, 피해자의 63.9%는 '남한 실정을 잘 몰라 당했다'고 답했음.
 - 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원인으론 높은 실업률과 직장생활 부적응이 꼽혔는데, 응답자의 32.7%는 '북한 출신은 남한 사람보다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7.3%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0년 설문조사에서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로 피해를 본 새터민들의 평균 피해액은 1,515만 원으로, 일반적인 1인당 사기 피해금액 평균은 155만 원 수준임.
 - 북한인권선교회 김희태 국장은 하나원 실시 자본주의 적응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보상금 등 목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국군포로들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속옷 치림으로 '서방님'? 결혼정보업체 '탈북 여성 비하' 광고 물의(8/26, 한겨레)
 - 탈북 여성과 한국 남성을 이어주는 부산의 한 결혼정보업체가 탈북 여성을 비하하는 광고를 SNS에 올렸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삭제했음.
 - 결혼정보회사는 20일 페이스북에 '북한 여성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탈북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만화광고 10편을 게재했음.

- 광고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감도 드러내고 있는데, 북한 여성의 장점을 '혼혈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폄하함.
 - 또 북한 여성들이 시부모님을 모시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든가, 북한은 군 생활이 10년이 넘어 '10살 차이는 일도 아니다' 등 근거 없는 주장들도 실려 있음.
 - 탈북 여성 지원단체인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조영숙 이사는 "북한 여성들은 남쪽보다 오히려 남녀 평등교육을 더 철저히 받고, 국경을 넘어왔기 때문에 생존력이 강하다"며 "그런데 이들을 말 잘듣는 순종적인 여성들로 매도해 남성들을 현혹하는 건 사기에 가깝다"고 비판했음.
- 탈북자, B형간염·빈혈·결핵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8/26, 코나스넷)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신장과 체중이 남한에 비해 작고, B형간염, 빈혈, 결핵 등 유병율도 최대 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조사에 참여한 탈북자 가운데 남자 12%, 여자 10%가 B형 간염자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B형 간염 유병률인 남자 3.6%, 여자 2.7%보다 각각 3.4배, 3.8배 높은 수치임.
 - 결핵 의심환자 역시 4.2%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북한 결핵 환자율 0.4%, 한국 0.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빈혈 유병률도 남자 8.4%(29명), 여자 14.3%(160명)로, 남한 남자 2.4%, 여자 11.1%보다 각각 3.5배, 1.3배 높음.
 - 반면, 고혈압, 당뇨, 비만 환자는 국내 환자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15.2%, 여자 14.6%로 남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당뇨병도 남자는 3.4%, 여자는 3.0%로 남한에 비해 3분의 1, 비만율은 남자 7.4%, 여자 13.5%로 남한 남자 36.1%, 여자 29.7% 대비 5분의 1 및 2분의 1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소 후에 의료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의료대책을 마련하고 질병 치료 등 건강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 북한내 탈북자기족, 逆으로 남한가족에 생계비 송금(8/26, 데일리NK)
 -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 중 일부가 역(逆)으로 남한에 정착한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함경북도 소식통이 알려줌.
 - 소식통은 "얼마 전 시장에서 전자제품을 파는 자매들이 남한으로 간 막내 동생이 생계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돈을 송금했다"고 전했다.
 - 소식통에 의하면 이 자매들은 시장에서 장사로 돈도 많이 벌며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으나, 막내 동생이 중국과 밀무역을 하다가 보위부에 적발돼 처벌을 우려해 2012년 홀로 탈북했음.
 - 남한에 입국한 막내 동생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북한에 있는 언니들에게 송금을 요청하여 북한에 남아 있던 언니들은 남한에 있는 동생에게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1만 위안(元)을 송금했음.
 - 이 같은 소문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장사하던 탈북 가족들도 남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그는 "한국이 좋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며 "돈 있는 상인들 속에서 자기형제 중에 탈북자가 있다면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분위기를 소개하면서 남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이 같은 소문을 접한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반응은 엇갈리는데, 대다수는 남한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형제들 덕분에 생활이 나아졌다고 하는 반면, 일부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북한의 가족에게 손을 벌리겠냐며 힘들게 가서 무엇하겠는가 라는 반응을 보임.

- 北 유명 교수, 망명요청했지만 한국대사관 외면(8/27, YTN)
 - 북한 피바다가극단 단원과 함께 중국에 연수를 왔다가 실종된 평양음악무용대학 황 모 교수는 여러 차례 한국행 망명을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한국대사관이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드러남.
 - 황 교수는 올해 초부터 사라지기 직전까지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수차례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음.
 - 감시 때문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없어 중국에서 알게 된 중국 동포를 통해 여러 번 한국행 망명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황 교수는 스스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기란 불가능해 사실상 거부 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음.

- 황 교수의 부탁을 받고 대신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던 대북 인권활동가에 따르면 황 교수는 실종 직전인 지난 5월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한국행을 타진했으나, 대사관 밖 탈북자 문제는 개입할 수 없다는 똑같은 답변만 듣고 결국 한국행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음.
- 외교부 관계자는 황 교수가 제3자를 통해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기록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임.

■ "지난해 북한 주민 대남인식 악화"(8/27, 연합뉴스)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작년 북한을 떠나 남한에 온 탈북자 149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이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한 비율은 55.7%로, 2012년 북한을 떠난 탈북자 대상으로 한 지난해 조사 때(63.9%)보다 감소했다고 밝힘.
- 반면 '남한이 적대 대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한 비율은 20.1%로, 작년 조사 결과(12.8%)보다 7.3%포인트 증가했으며, '남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답한 비율도 45.9%에서 63.7%로 대폭 증가함.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지난해 초긴장 국면을 겪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북한의 대남 비난 선전이 북한 주민의 부정적인 대남 인식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한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도가 5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64.4%로, 작년 조사 결과(61.7%)보다 소폭 증가했음.

■ 수원남부서, 민주평통협의회와 '탈북자 지원' MOU(8/28, 연합뉴스)

-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음.
- 수원남부서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고 등의 이유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와 함께 법률자문위원과 의료봉사·결혼식 지원, 주요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임.

- 검찰, '北 보위부 직파간첩' 홍모씨에 징역7년 구형(8/28, 머니투데이)
 -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의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40)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음.

- "탈북 꽃제비 20명 중국서 은신 중"(8/29, 자유아시아방송)
 - 북·중 국경을 무작정 넘어온 탈북 꽃제비 스무 명이 현재 중국 모처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인권 관계자들이 향후 이들을 구원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임.
 - 한 탈북자 브로커는 현재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동북지방에서 2~3년 전에 북한을 무작정 탈출해 중국에 건너온 15세~19세인 꽃제비 20명을 보호 중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 꽃제비들은 중국 길림성 연길과 심양 등지의 비교적 안전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 당국의 통제가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음.
 - 중국 당국이 외국인 불법 월경, 불법 체류 등 단속을 강화한 결과, 한국과 미국 등에서 파견되어 활동하던 기독교 선교사들과 인권 관계자들이 철수해 보호소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은 언급했음.

- 러시아 내 탈북자 수백 명의 신변이 위험하다(8/29, 데일리안)
 - 러시아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해온 윤태형 조선대성은행 수석대표가 잠적해 망명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올 4월 탈북자 검거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중국 내 대북소식통의 전언이 29일 입수됐음.
 - 그동안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탈북자에 대한 처분을 해온 만큼 소식통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를 떠돌고 있는 수백 명의 탈북자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음.
 -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11년 8월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원래 유엔이 마련한 안전가옥에 탈북자가 10여명 모이면 출국 허가를 내주던 것을 한동안 금지한 일이 있음.
 - 소식통은 "이전에는 러시아에 주로 벌목공 신분으로 북한 주민들이 많이

나갔지만 지금은 건설 노동자들이 많다"면서 "임금 지불 방식도 지금은 노동자가 직접 받아서 일정 금액을 기업소에 상납하는 식으로 바뀌었지만 북한 당국이 2009년부터 상납금액을 월 500달러에서 700달러로 높이면서 탈출하는 주민이 대량 나왔다"고 설명했다.

- 한편, 러시아에서 잠적한 윤태형 씨는 지난주쯤 러시아 나훗카에서 500만 달러를 갖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대북소식통은 "윤 씨가 대외적으로 은행장 역할을 해왔으며, 러시아 극동지역 등에서 김 위원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책임져왔다"면서 "현재 북한은 윤 씨를 체포하기 위해 러시아 공안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 이번에 북·러 간 탈북자 검거 협력 소식을 전한 대북소식통은 "대성은행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무역관리국 소속으로 사실상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북한에서 유일하게 무역관리국이 은행을 소유한 경우로 가장 규모가 큰 외화벌이 기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일본 납북 피해자 가족들, 철저한 재조사 촉구(8/27, 미국의 소리)
 -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이 26일 우쓰노미야 시에서 열린 집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음.
 - 지난 1978년 전 납치된 다구치 아에코 씨의 동생인 리주카 시게오 씨는 이번에는 일부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 납북자 마쓰모토 루미코 씨의 동생 마스모토 테루아키 씨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불성실한 반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함.

- 한편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은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아직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으나, 일본의 모든 정부 기관들이 북한의 보고서에 즉각 반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속도내던 北·日관계 '빠각'... 北, 日납북자 통보 늦출 듯(8/28, 문화일보)

- 교도(共同)통신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북한이 1차 조사 결과를 일본에 통보하는 시점을 당초 예정된 9월 초에서 9월 셋째 주 이후로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 북한이 일본과의 물밑 협상에서 납북자 조사의 대가로 대북제재 추가 해제 등을 요구했다가 일본 측이 난색을 보이자 1차 조사 결과 통보 시점을 연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임.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10일 미얀마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만나 9월 초에 1차 조사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었음.
- 북한은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 재개를 비롯해 경매에 넘겨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및 토지 매각을 막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측은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만경봉호의 입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임.
-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쌀을 비롯한 물자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일본은 북한에 빠른 시일 내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으로, 일본 정치권 안팎에서는 북한이 성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높음.

■ "북, 하루 속히 납북자 송환해야"(8/2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올해 중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또 다시 납북피해자 생사확인 등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세계강제실종피해자의 날을 하루 앞둔 29일 납북자들과 가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 국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납북어부 최원모 씨의 아들인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9일 북한은 납치

사실을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생사확인이라도 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음.

- 日 납치문제담당자 "현 단계서 北서 듣고싶은 말 들어"(8/31, 연합뉴스)
 - 일본 내각부 소속의 납치문제 담당 정부 관계자는 한일 기자단 교류차 일본을 방문한 한국 언론과 지난 26일 만난 자리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다고 해서 협상 자체를 중단시킨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 이 관계자는 재조사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북한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조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납치 피해자 분과라는 것을 만들었다"며 "이 단계에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요코타 메구미의 딸 김은경 씨가 연내 일본을 방문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라던가 예정은 없다"고 답했음.

6. 국군포로

- '납북포로 안학수' 동생 33년 만에 낸 교원복직소송 패소(8/31,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납북 포로' 안학수씨의 동생 안용수(62)씨가 '빨갱이 가족'이라는 오명 때문에 잃은 교사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33년 만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음.
 - 안학수씨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던 하사로, 1966년 9월 현지에서 북한에 포로로 끌려간 뒤 평양방송과 노동신문 등을 통한 대남 선전에 이용됐음.
 - 이 때문에 동생인 안 씨는 고등학생 시절 육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에 수차례 불려가 폭행을 당했으며, 교대를 졸업한 뒤 교사가 돼서도 교장으로부터 사직 압박을 받고 보안사 직원의 감시와 폭행이 계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결국 안씨는 1980년 9월 4월 사직서를 냈고 이는 즉시 교장의 결재를 거쳐 다음 날 의원면직 처분됐음.

- 하지만 2009년 진상조사를 통해 통일부는 안학수씨를 '국군포로'로 인정했음.
- 이에 안씨는 2013년 9월 교장 등의 강압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복직을 신청을 냈으나, 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은 적법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 재판부는 월북으로 안 씨가 오랜 기간 고초를 당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안 씨가 사직을 결심할 만큼 교장의 강압이 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음.
- 안 씨의 항소로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에 배당된 사건은 10월 1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음.

7. 대북지원

- 유엔 농업기금, 북 대출사업 6년째 중단(8/25,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당분간 북한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이 기구에 되갚아야 할 대출상환금 규모는 약 4천만 달러로 파악되고 있지만 대출금 상환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임.
 - 국제농업개발기금은 2011년부터 대북 사업 재개를 검토했지만 4년째 성사되지 않았음.
 -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 제재와 북한의 불투명한 금융 구조가 사업 재개를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이며, 북한의 원활하지 못한 대출금 상환도 일조함.
- 독일 정부, NGO 통해 45만 유로 대북 지원(8/26, 미국의 소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가 25일 발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14일 '독일 카리타스'이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벌이는 영양·보건 사업에 45만 유로, 미화 60만 달러를 지원함.
 - 독일 카리타스의 라인하르트 버크너 아시아 담당 소장은 이번 지원금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독일 카리타스는 대북 지원 사업으로 결핵요양소 1백 곳과 간염요양소 50 곳의 환자들에게 보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양열 온실 사업과 의료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음.

- FAO 북한과 2개년 '기술협력사업' 합의... '구제역, 조류독감' 안정(8/27, 미국의 소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해 북한 당국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 초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식량농업기구의 후안 루브로스 수의국 국장은 26일 북한이 지난 7월 북한이 식량농업기구와 동물질병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술협력사업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 실행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사업의 목적은 식량농업기구 가축전염병 실사단의 북한 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질병 예방과 퇴치,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북한과 사업 출범에 앞서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고, 구제역 검역과 진단을 위한 실험장비 등도 구입했음.
 - 사업에는 북한 보건 관계자들에게 질병 검역과 진단을 위한 실험장비 사용법과 질병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바이러스 표본을 채취,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 포함돼 있음.
 - 사업 관련 예산으로 미화 43만 달러를 책정되었으며, 식량농업기구가 아직 북한에 제공할 백신을 구입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백신 구입을 위한 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한편 루브로스 국장은 올해 초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현재 안정화 상태에 있다고 설명함.

- 프랑스 정부, NGO 통해 21만 유로 대북 지원(8/29, 미국의 소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가 28일 발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8일 프랑스의 민간 구호단체 '프리미어 어전스(Premiere Urgence)'의 대북 사업에 21만 유로, 미화 28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 '프리미어 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 사업 담당관은 다음 달에 지원금을 받아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 지원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함.
 - 지원금은 북한 주민들에게 채소 재배와 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며, 이 사업으로 황해남도 지역 주민 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임.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에도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사업에 16만 유로, 미화 22만 달러를 지원하여 이 자금은

- 황해남도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안보 사업에 제공됐음.
- 프리미어 어전스는 현재 식량안보 사업의 일환으로 황해남도 협동농장 4곳에서 염소 우유 생산을 위한 염소 사육 방법과 이를 이용해 요구르트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음.
 - 이밖에 황해남도 지역 병원과 보건소 등에 90만 유로, 미화 125만 달러를 투입해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북한 의료진에 기술을 교육하는 사업도 진행함.
 - 한편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 또 다른 프랑스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에 38만 5천 유로, 미화 53만 달러를 기부해 양로원 노인들을 위한 식량안보 사업을 지원한 바 있음.

8. 북한동향

- 日 총무상 등 아베 내각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8.15)에 대해 '지난날의 제국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살아나 갈 수 있는 길은 어지러운 과거와 결별하는 것'이라고 주장(8.24, 중앙통신·노동신문/어리석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놀음)
- 김정은 黨 제1비서 지시, 8월 24~25일 평양시 탁아소·유치원들과 육아원·애육원·미림학원 어린이들에게 금수산태양궁전 포도원에서 수확한 "포도송이" 전달 (8.2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8.26) 美 백인경찰 총에 흑인청년 사망 사건 등 관련 "미국이야말로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주민들이 언제 총에 맞아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암담한 인권유린국가"라고 비난 (8.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키시마마루 폭침사건('45.8.24) 관련 '일본 정부의 조선인학살계획에 따라 조직 집행된 고의적인 집단살인 범죄사건'이라고 비난(8.26, 중앙통신)

- 채무진(北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사), 美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소년(마이클 브라운) 사망에 "함구무언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인권타령이야말로 남을 걸고들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다"고 비난(8.28, 중앙통신/병어리가 된 인권재판관)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